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착공 보고회.

사진=광주시청제공

## 글로벌 랜드마크 '더현대 광주' 10월 첫삽, 2028년 개점

광주 지역 최초·최대 규모 민간 복합문화 상업시설이자 미래형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쇼핑을 넘어 예술, 문화, 자연,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탄생한다.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 착공, 2027년 말 준공하고, 2028년 상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그룹은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6월18일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착공까지의 추진 경과, 비전과 로드맵, 내·외부 콘텐츠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광주는 오는 10월 첫삽을 뜬 뒤 2027년 말 완공, 2028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최초·최대 미래형 쇼핑몰, 8일 착공보고회 "쇼핑·문화·여가" '더현대 서울'보다 1.45배, 건축계 거장 헤르조그&드 뫼롱 설계

3만2364㎡(9790평) 대지에 연면적 27만2955㎡(8만2569평), 영업면적 10만890㎡(3만2평) 규모로 '더현대 서울'보다 1.45배 크다.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 총 주차대수 2652대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자 광주도심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이다.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그룹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 1월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 현지법인인 더현대 광주가 설립됐고, 건축·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월18일 건축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착공을 알리는 부지 내 공사가림막은

광주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된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법인장은 "더현대 광주는 광주 최초이자 최대 미래형 복합쇼핑몰로, 더현대 서울 이상의 공간 혁신과 호남의 문화유산을 접목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며 "글로벌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쇼핑과 문화, 여가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여 완공 후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현대 광주는 광주의 전통과 문화유산·미래의 기술을 반영해 건축계의 거장인 헤르조그&드 뫼롱이 설계했다.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심가를 연상케 하는 '럭셔리 스트리트'로 꾸며진다. 지상 1층부터 천장까지 60m를 관통하는 대형

중앙보이드 공간을 통해 개방감을 선사하고 2층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플로팅 가든' 두 곳이 조성돼 건축물 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3~5층은 수직 조경과 다양한 콘텐츠, 예술적 조형물이 어우러지고 에스컬레이터는 더현대 광주의 대표적 포토명소로 활용된다. 상업시설 최초로 대규모 실내식물원을 도입해 도심 속 휴식공간(리테일 테라피)을 제공하고 예술·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400평 규모 유리천장을 통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확대했다. 지하는 세계적인 맛의 거리와 호남 맛집, 북적한 전통시장까지 느낄 수 있도록 상생마당으로 구상되고 있다.(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 '광양 최저 26.9도' 밤에도 폭폭 쪼다

연일 밤사이 최저기온은 25도 이상 열대야 관측

광주·전남에 12일 째 짙더니위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전날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은 광양이 26.9도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26.7도, 무안 윤남 26.6도, 여수 여수산단 26.4도, 담양 봉산 26.3도 순천 26.1도, 목포·강진·곡성·영광 25.6도 순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지난 4일 밤부터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났다. 광주와 여수, 순천도 사흘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일 폭염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12

일째인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하순·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전남 3개 시·군(목포·신안·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 중이다.

이날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2~35도 분포로 나타나 평년(25~29도) 수준 보다 높겠다.

일부 지역에는 최고 40mm 가량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외 작업장과는·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돌봄 실천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8~9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황을 둘러봤다.

이 포럼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첫날인 8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의원단은 또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단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관계돌봄' 실천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기에는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전광훈 기자

##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 삼부철강(주)